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똑딱맨을 불러 주세요!



생활복지119 '고양똑딱'

이른 더위가 찾아온 봄날,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공구 가방을 든 이들이 한 집으로 들어가자 드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망치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오늘은 취약 계층을 위한 생활복지119 '고양똑딱' 서비스 현장을 찾아 똑딱맨들의 활약상을 소개해 본다.

WRITER. 임기선



고양의 따뜻한 손길 생활복지119 '고양똑딱'

생활복지119 '고양똑딱'은 사회적 취약 계층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고양시장이 사회 취약 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한 가구당 연 3회 전기시설 및 설

비시설의 소규모 정비, 냉·난방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 안전·위생상 문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 생활복지119 '고양똑딱'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82세의 주영배 어르신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수리할 곳이 많아졌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고민만 하다가 생활복지119 '고양똑딱'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